

漢字語와 漢字混用

南 豐 鉉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국어의 語彙는 한자어가 60여%를 차지하느니, 70여%를 차지하느니 한다. 통계를 내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자어의 수가 非漢字語의 수를 훨씬 능가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에 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하고 있는 ‘大辭典’의 표제어 항목 가운데 한자어는 모두 316,721이라는 조사 보고가 나왔다. 이 사전은 국어에 사용되는 모든 어휘를 망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專門用語, 固有名詞, 古語, 北韓語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전은 이제까지 나온 어느 사전보다도 어휘수가 많고 그에 따라 한자어의 수도 많이 담고 있는 것이다. 이 30여 만의 한자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한자의 수는 총 7,471자라 한다. 그러나 그 95%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한자는 2,258자이며 90%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한자는 1,590자라는 통계가 나왔다.¹⁾

이 통계는 한자 1,600자 정도를 익히면 남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의 90%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95%를 이해하려면 2,300자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이 2,000자 정도의 한자를 익히어 30만 단어

1) 南潤珍(1998). 「漢字 使用 頻度 研究」(국어 사전). 『國際 文字 코드 提案 漢字의 標準化에 대한 研究(상권)』. 문화관광부, 8~11면 참조.

이상의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의 학습과 사용이 매우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한자의 교육과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글을 草한다.

II

漢字語는 역사적인 產物이다. 우리의 선인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口語로서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文語로서는 漢字와 漢文을 사용한 결과 한자어가 고유어의 수를 능가할 만큼 풍부하게 된 것이다. 중국인들을 제외하곤 우리만큼 한자·한문을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민족도 없을 것이다. 기원 전 漢代에 한자가 이 땅에 들어와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니²⁾ 그런 가운데서 우리말에 고유어의 수를 능가할 만큼 많은 한자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한자어는 우리 先人들의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여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생활을 수준 높은 次元으로 올려 줄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이 한자·한문의 사용을 오늘의 지식인들은 매우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물론 漢字混用을 주장하는 사람도 우리 선인들이 한자를 사용한 것이 불행한 과거라고 하여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우리 선인들의 한문 사용은 결코 불행했던 과거가 아니었다. 우리의 선인들은 한문을 통하여 紀元前 이른 시기에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사회 집단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발달된 문화를 享有할 수 있는 길이 트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문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儒學을 익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 졌다. 儒學은 동양문화의 精髓로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큰 가르침이다. 극히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학문을 접하고 그 가르침을 수용한 것은 우리 선인들이 문화적 역량이 뛰어났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한문은 佛敎를 수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 선인들의 佛經 학습이 얼마나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었는가는 오늘날 남아 있는 佛家의 많은 論疏들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니 이 과정에서 수준 높은 정신 활동의 소산인 불

2) 이웃 일본이 거의 우리와 비슷하게 장기간 한문을 익히어 사용하였으나 우리보다는 역사가 짧고 또 우리의 先人들만큼 철저하게 한문을 구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 용어가 우리말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한문은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을 채워 주는 문어의 구실을 하였다. 製述科와 明經科 이외에 法學, 醫學, 算學, 地理學, 譯學 등에서 科擧를 통하여 인재를 뽑았으니 이와 관련하여 이 방면의 학문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그 한자어들이 들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한문은 우리 선인들이 原始文化의 수준으로부터 세계의 문화와 만나고 또 그 문화의 창조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한문은 학문의 도구로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上代에 있어서 한문은 國際言語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중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契丹, 女眞, 蒙古, 日本 등 동양의 모든 민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제어로서 한문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문을 통한 문물의 교류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한편 한문이 보급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借字表記法이 발달하여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吏讀, 鄉札, 口訣이 그것으로서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 고려 시대에 이르는 사이에 이들은 한문에 못지 않게 전국 곳곳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불행히 오늘날 전하는 양이 적어 그 전모를 짐작할 수 없지만 이들에 의한 記錄文化도 괄목한 것이었던 것이다. 또 이두와 향찰은 고유어와 한자어를 섞어 쓰는 것이었으니 國·漢混用의 전통은 이미 이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15세기에 와서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이 국·한혼용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기원 전에서부터 朝鮮王朝末까지 한문의 사용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여 주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우리의 선인들은 한자 문화권에서 빼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였고 중국인들로부터는 東方禮儀之國이란 칭송을 받을 만큼 높은 수준의 문화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국어 속에 한자어가 수용된 것이니 우리는 이를 자랑으로 삼을지언정 결코 불행했던 과거의 유산이라고 貶下할 것이 아니다.

한문이 우리 문화의 발달을 沮害하는 요소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세기에 와서이다. 西歐의 세력이 중국에 들어와 阿片戰爭을 일으키고 그에 패한 清朝가 기울기 시작하자 西洋 文物이 세계의 문물을 가늠하는 표준이 되고 東洋의 傳統은 일시에 因襲의 찌꺼기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땅에서 言文一致 運動이 일어났고 한자·한문은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도구라

는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과거 한문을 眞書라고 하여 숭상하고 한글을 諺文이라고 하여 천대하던 시대에 지나치게 한자·한문을 남용하던 폐단에 대한 당연한 反作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이 씻겨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한글 전용을 주장하여 우리의 국어생활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올바른 우리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한글 전용의 이론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어느 정도 呼應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론 가운데는 지나친 盲點이 있다.

한글 전용의 이론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은 과거의 지식인들이 漢學의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한자어를 남용하여 문장의 대중성을 상실하게 한 것이 그 하나의 배경이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여 가는 과도기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 지식인들의 固陋性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들은 미처 언문일치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한문만을 익혀 왔기 때문에 그를 실천할 만한 소양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日帝治下에서 나라를 잃은 울분을 배경에 깔고 國語運動을 하여 오는 과정에서 한글 전용의 이론을 민족의 正體性和 결부시킨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固有語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애국애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의 淳正言語 이론도 가세하였던 것이니 한자어는 외국어요 고유어는 우리 것이니 이를 살려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젊은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순정언어 이론이 나치의 패망과 함께 사라진 오늘에 있어서도 그 殘滓가 우리의 국어정책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의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글은 우리의 固有文字인데 한자는 外來文字라는 인식이 民族意識이란 미명으로 분식되어 유포되어 있다. 그리하여 외래문자인 한자를 쓰는 것은 事大的이라는 주장도 흔히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그 민족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문자가 몇이나 될까? 유럽에서 쓰고 있는 알파벳은 고대 회람에서 생겨 로마를 거쳐 여러 민족에게 유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다. 세계 最古의 문자라는 슈메르 문

자는 그 문자를 만든 민족은 없어졌지만 아랍민족에게 이어져 아랍문자가 되었다. 이것이 중앙 아세아로 전파되어 回鶻文字가 되었고 이것이 또 몽고를 통하여 고려에까지 들어와 사용되기도 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도 간접적으로는 이 문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자는 여러 민족을 거치면서 발달하는 것이니 한 나라가 자기의 고유문자만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옳절한 생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漢字의 기원은 중국에 있지만 우리는 그 문자를 2천 년 가까이 사용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3십만이 넘는 한자어가 우리의 사전에 실리게 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인들이 만든 단어가 주를 이루지만 ‘無窮花’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들도 적지 않다. 上代에는 중국어의 단어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전파되었으나 오늘날에는 ‘科學’, ‘哲學’, ‘文學’과 같이 일본에서 西歐語를 번역한 한자어가 逆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까지 들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자는 어느 한 민족의 문자라기보다는 漢字文化圈의 共有財産인 것이다. 우리는 한글이 사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고유문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자가 한자 문화권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자를 익히면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기 쉽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한자로 쓴 중국어 문장과 일본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유학 온 日本人 學生들이 한글만으로 쓰여진 교과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漢字를 混用한 교과서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중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지만 중국인들이 쓴 中國語史에 대한 論著를 여럿 읽어 전공분야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한자가 오늘날에도 漢字文化圈의 문자로 살아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得인 것이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이지만 漢字는 쓰기 힘들고 배우기 힘든 글자라는 주장이 한자를 忌避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자가 소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意思傳達의 道具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지각없는 短見인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자는 한글에 비하여 획이 복잡하여 쓰기 힘들고 글자수가 많아 배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2,000자 미만의 글자를 익히면 30만 단어 이상의 漢字語를 쉽게 익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漢字는 처음 入門할 때는 쓰기와 배우기가 어렵지만 일단 익히어 익숙해지면 문장의 뜻을 쉽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문장의 내용을 기

억하기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글 전용으로 된 글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뜻이 애매하여 망설이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문자가 소리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意味의 辨別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이 쓴 글을 인상 깊게 읽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도 한자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알아야 한다.

電算化 시대에 한글을 사용하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한자를 사용하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어느 한글 전용론자가 펼치고 있다. 이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 打字機만 사용되던 시대에 하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한글타자기만 사용되던 시대에는 한자를 쓰는 것이 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한 때는 한글 가로쓰기라 하여 한글의 字體를 로마자와 유사하게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음소문자를 조합하여 음절단위로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長點을 말살하려던 것이니 구두에 발을 맞추려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국어의 전산화에 있어서도 정보처리가 중요한 것이지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보화하자면 입력된 자료의 辨別性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있다는 것이 국어의 정보화를 위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글을 전용하면 우리의 傳統이 斷絶될 것이라는 사실이 누누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漢文의 翻譯이다. 한문으로 된 우리의 고전을 번역하여 그것을 읽으면 그것으로써 옛 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漢籍의 國譯 사업에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있다. 고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사업은 고전의 내용을 보급하기 위하여 유익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통의 계승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극히 초보적인 發想에 불과한 것이다. 고전의 번역은 그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가 드러난 것이 지 고전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번역본이 원전을 대신할 수 없음은 고전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학자들은 번역본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전을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번역본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文獻資料는 비단 典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書庫에 쌓여 있는 많은 古文書와 文蹟들 속에도 있다. 이들도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인들이 남겨 준 유산인 것이

다. 이러한 자료가 현재 거의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 과거의 유산인 전통과의 단절은 번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자·한문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자·한문으로 쓰여진 전적과 기록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계층이 없어져 가는 데 있는 것이다. 현재 韓國學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러한 研究人力이 배출되지 않는 데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IV

국어사전에 50만여의 단어가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그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밀튼의 시에는 8천여 단어가 사용되었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2만여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통계가 있다.³⁾ 한 작가가 평생동안 쓴 작품에는 그가 알고 있는 단어가 거의 다 실현되어 있다고 하긴 어려워도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어느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믿어진다.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의 어휘량은 불과 몇 10단어에 불과하지만 6세가 된 어린이가 사용한 단어의 수는 2,600여 개였다는 통계도 있다. 성인이 되어 많은 매스컴에 노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2만 단어까지 가진 쉽지 않을 까 한다. 우리가 話者로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그 정도로 보면 듣고 이해하는 단어의 수는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생활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2만 단어를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이와 같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日常生活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漢字로 표기하지 않아도 대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어는 한글만으로 표기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고 한자를 통해야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경우 漢字混用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專攻學問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음소’나 ‘이형태’나 하는 용어들은 이 방면의 전공자가 아

3) 오토 예스페르센 지음(김선재 옮김), 「언어」, 문교부, 1951. 189면 이하 참조.

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術語는 한정된 범위의 전공자들만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글에서는 구태여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술어라도 처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그 학문에 入門하는 사람은 한자로 표기한 것이 학습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근래에 韓國學 분야의 논문을 보면 한글을 전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가고 있다. 參考文獻欄을 보면 본래 한자로 쓰여 졌던 논문 제목까지도 한글로 고쳐 놓고 있다. 한국학은 漢文原典을 읽지 않고는 연구할 수 없는 분야이고 그 용어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한문의 학습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의사전달의 障礙를 초래하는 것은 한자가 우리글이 아니라는 편견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漢字實力은 놀랄 만큼 저하되어 있다. 이른바 일류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신문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讀音을 시험하였더니 평균점수가 75점밖에 안되었다는 조사가 있다. 그 중에는 '韓國'이라는 한자어의 독음을 모르는 학생도 있었다고 하니 우리의 語文教育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대학의 국문과 4학년 학생에게 한자 혼용의 專攻書籍을 읽히면 독음을 몰라서 더듬거리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 비단 학부학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원 博士課程의 학생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자기 전공 분야의 서적을 한자 혼용으로 인하여 읽을 수 없는 한국학의 문학박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문과학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憂慮가 앞선다.

V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보았다. 國定教科書인 「국어」 상, 하에서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경우는 매 면 10단어 내지 20단어의 한자어에 漢字竝用을 하고 있다. 古典에서 「關東別曲」은 한자를 大字로 쓰고 그 옛 한자음을 小字로 달았고 「龍飛御天歌」는 한자를 쓰고 그 현대음을 괄호 속에 병기하였다. 「己未獨立宣言文」도 이와 같다. 「국어」 교과서에서 교육용 한자 1,800자를 모두 반영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자어의 한자

표시를 충실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국정교과서인 「국사」 상, 하는 거의가 한글 전용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漢字並用을 한 예가 있다. 「공통 사회」 상은 ‘일반 사회’인데 교육부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거의 한글 전용이어서 한자 병용의 예는 十指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 「하권(한국 지리)」에서도 한자 병용은 大同小異하여 한글 전용 교과서라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다.

理科系 교과서는 완전히 한글 전용이다. 수학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과학」, 「가정」 등의 교과서에서 한자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이 중 지구과학의 교과서에 쓰인 학술 용어들의 용례를 몇몇 뽑아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

경기 육괴 및 영남 육괴

원인, 직립 원인, 구인, 신인을 거쳐 현대인으로 진화했다.

누층군,

해성층

여기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은 한자어임이 분명하지만 그 한자가 무엇인지 이 방면의 門外漢인 필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그 뜻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다음의 한자어는 충분한 문맥을 주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중 화강암류는 서울과 원산을 잇는 선을 경계로 하여 그 남쪽에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저반상으로 분포하지만...”

에서 ‘저반상’이란 용어가 그것이다.

이러한 예는 한글 전용에 가까운 文科系 教科書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것이지만 理科系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學術用語는 文科系보다는 理科系의 교과서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등학교 이과계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고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은 모순 가운데 큰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교 國語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저하되는 이유를 물으면 학생들의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한자를 가르칠 여유가 없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제기하여 준다. 앞의 지구과학 교과서에 쓰인 용어들의 개념을 그 용어의 한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학생

들에게 설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들 用語의 概念은 한자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설명이 되는 것이지만 그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결국 국어 선생이 아닌 지구과학 선생이 그 한자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國語 授業 時間에 한자의 학습이 어렵지만 일단 限定된 數의 한자를 익히면 그 효과는 高等學校 教科 全 領域에 걸쳐서 크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VI

젊은 세대의 漢字驅使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어의 造語力이 극도로 저하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사회가 발전되어 가면 당연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新造語가 만들어진다. 현대와 같이 세계의 문화 교류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외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신조어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자를 모르는 이들이 새 개념을 위한 신조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어 생활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각에서는 한자 혼용의 필요성을 말하면 親日派로 몰아 가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그들이 식민지 시대의 敗北主義의인 열등감에 感染된 결과인데 그러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신조어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과거 많은 논설에서 지적된 바 있어 부연하지 않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방면에서 우리의 國力이 일본에 뒤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古來로부터 19세기말까지 근 2천 년 동안 우리의 한자·한문의 능력은 일본에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의 한자어 조어 능력이 그들에게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한자어 조어능력은 한자를 알고 있음으로써 모국어의 한자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자어 조어능력의 저하로 그를 대체할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뒤따라가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Ⅶ

한국인이 漢字文盲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초등학교부터 한자에 대한 기초를 익히지 못하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주 1시간 정도의 한문을 1년 간 배워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간다. 고등학교의 이과계에서는 한자·한문 교육이 전혀 없고 문과계에서는 교과서의 괄호 속에 들어 있는 한자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하여 학습해야 할지를 터득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교사들 가운데서 한자를 가르칠 능력을 갖춘 이조차 없어져 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차피 없어질 한자인데 무엇 때문에 漢字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땅의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대학교수까지도 이제는 한글 전용의 시대가 도래된 것으로 치부하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곧 없어질 한자인데 구태여 배울 이유가 없다는 생각, 이것이 젊은이들의 한자능력을 급속도로 저하시키고 있다. 한자의 初學者들이 한자를 쓰고 익히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학습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쉬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 한자를 학습할 의욕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가 이해하는 국어의 語彙量은 급속도로 저하되어 그들의 사고 영역이 계속 좁아져 가고 世代와 世代를 잇는 思维的 끈은 끊어지고 만다. 이것은 급기야 민족의 正體性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문화를 추종의 문화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대학 캠퍼스 안에 나붙는 벽보들을 보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국어의 장래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이다.

한자는 어려서부터 익혀야 한다. 그리하여 그 사용이 몸에 배었을 때 그들은 한자 학습의 두려움을 쉽게 벗어 버릴 수가 있고 안정된 국어의 驅使能力을 지닐 수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漢字를 괄호 속에 넣는 漢字並用方式도 빨리 해제하고 漢字混用을 해야 한다. 漢字並用은 같은 말을 한글로 쓰고 그것을 다시 한자로 쓰는 浪費일 뿐더러 한자 학습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자는 우리 국어생활에서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묵은 짐이 아니다. 앞으로 백 년이나 2백 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도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려 우리의 국어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思考의 영역을 넓혀 줄 수 있는 資産인 것이다.

2천 자 미만의 한자 학습을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익힌다면 결코 어려운 부담이 아니다. 이 정도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읽기만 하는 것은 대학의 한 학기 교양국어 시간을 통해서도 거의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 한자어를 생활화하여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자면 熟練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10수 년의 시간을 소비하고 토플 시험에 응시하고자 2만 2천 단어를 익혀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우리의 한자 학습은 너무도 쉬운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